



김유신

‘오락가락’ 김유신 활용 ... 선발 육성도 ‘갈팡질팡’



‘오락가락’ 김유신의 활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어렵게 4·5선발을 꾸려가고 있다. 팀에게는 위기지만 젊은 투수들에게는 ‘기회’다.

좌완 김유신도 기회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상무 복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 팀에 복귀한 김유신은 올 시즌 1군에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프로 첫해였던 2018년, 10경기에 나와서 13이닝을 소화했던 김유신은 올 시즌에는 14경기에서 48.2이닝을 던졌다. 9경기는 선발로, 4경기는 불펜 투수로 나섰다. 성적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14경기에서 7.95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 5패를 기록했다. 탈삼진(27개)보다 볼넷(34개)을 더 많이 기록했고, 11개의 피홈런도 남겼다. 이닝 당 출루허용률은 1.87,

선발 - 불펜 오가며 등판...만족스럽지 못한 성적 선수 육성 차원 최선의 활용법 진지한 고민 필요

피안타율도 0.302에 이른다.

부족한 성적에도 팀 상황상 김유신은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다.

6월에는 브룩스와 멧덴이 동시에 부상으로 빠졌고, 후반기 시작과 함께 브룩스가 이탈하면서 김유신은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렸다.

기회의 시즌에 부족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단순히 김유신만을 탓하기에는 활용도가 아쉽다.

김유신의 후반기 첫 등판 예정 날짜는 12일이었으나 이날 비가 오면서 김유신의 등판이 무산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 로테이션을 하루 미루는

대신 원래 준비했던 대로 멧덴-이외라-임기영으로 주말 SSG전을 치렀다. 김유신은 또 불펜 대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4일 휴식 뒤 등판에 나선 임기영이 초반 일찍 흔들리자 윌리엄스 감독은 김유신을 두 번째 투수로 투입했다.

2사 만루에서 급히 마운드에 오른 김유신은 한유섬에게 만루포를 얻어맞는 등 1.1이닝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마운드 집중 전략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냈고 KIA의 8연승도 마감됐다.

15일 불펜 투수로 나와 충격의 만루포를 맞았던

김유신이 18일 두산전에서 다시 선발로 나온다. 김유신의 불펜 대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김유신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다. 우천 취소 등으로 선발진 운영에 여유가 생기면 김유신의 등판도 밀리고 있다.

지난 6월 5일 LG전 선발 이후 김유신은 6월 16일 SSG전을 통해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랐다. 감이 떨어진 만큼 실전에서 불펜피칭을 겸해 감을 잡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유신은 선발(6월 18일 LG전), 구원(6월 24일 KT전), 선발(6월 26일 키움전)을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2패만 기록했고, 윤중현에 이어 구원 등판한 KT전에서 박준표의 볼넷 세이브가 나오면서 팀은 패배를 기록했다.

7월 4일 두산전에서야 겨우 기다리던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했다. 이날 김유신은 5이닝 4피안타 4

볼넷 1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팀의 7-3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우천취소, 코로나 취소가 겹치면서 전반기 마지막 등판 역시 불펜(7월 9일 KT전)이었다. 후반기 첫 선발 등판도 비로 차질이 빚어졌고 김유신은 다시 불펜과 선발을 오갔다.

김유신에게 2021년은 사실상 프로 첫 시즌이나 다름없다. 경험도 부족하고, 운영 능력도 떨어진다.

여기에 선발과 불펜은 준비 과정과 등판 내용도 다르다. 그만큼 김유신에게는 올 시즌 기회가 마냥 기회는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안정된 선발 육성은 선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또 KIA에게 선발 육성은 올 시즌은 물론 내년 시즌까지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김유신의 활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향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시우

‘무한 경쟁’ PGA 플레이오프 막 오른다

노던 트러스트 19일 개막 ... 김시우·임성재·이경훈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투어가 끝나고 ‘무한 경쟁’ 플레이오프의 막이 오른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총상금 950만달러)가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파71·7410야드)에서 열린다. 우승 상금은 171만달러(약 20억원)에 달한다.

플레이오프에는 정규 투어 최종전인 윈덤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위에 든 선수가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임성재, 이경훈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들은 각각 페덱스컵 랭킹 30위, 31위, 34위로 정규 투어를 마쳤다. 이 가운데 김시우는 윈덤 챔피언십을 공동 2위로 마쳐 기세가 좋다.

플레이오프에는 노던 트러스트, BMW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 등 총 3개 대회로 구성됐다.

노던 트러스트 결과 페덱스컵 랭킹 70명만 다음 대회인 BMW 챔피언십(8월 26~29일)에 진출한다. 55명은 탈락한다.

그리고 최종 30명의 선수만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9월 2~5일)에서 PGA 투어 최

강자 자리를 두고 겨룬다.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려면 일단 노던 트러스트에서 안정적인 랭킹을 확보해야 한다. 선수들은 무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노던 트러스트는 플레이오프 대회 중 유일하게 컷 탈락이 있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 톱5는 콜린 모리카와 조던 스피스, 패트릭 캔틀레이, 해리스 잉글리시(이상 미국), 온 램(스페인)이다. 램은 세계랭킹으로는 1위다. 세계랭킹 2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페덱스컵 랭킹으로는 17위로 밀려 있지만, 노던 트러스트 유력한 우승 후보다.

존슨은 지난해 노던 트러스트에서 11타 차 압도적인 우승을 거뒀고, 기세를 몰아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라 우승 보너스 1500만달러(약 175억원)를 차지했다. 존슨은 2011년과 2017년에도 노던 트러스트에서 우승했다. 페덱스컵 랭킹 125위로 턱걸이로 노던 트러스트 무대에 오른 체스 해들리(미국)가 플레이오프 도전을 어디까지 이어갈지도 관련 포인트다.

페덱스컵 랭킹 126위로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초대받지 못한 선수는 2018년 페덱스컵 챔피언인 저스틴 로스(잉글랜드)다. /연합뉴스



수창초가 협회장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수창초, 제1회 회장배 초등 저학년 야구대회 우승

수창초가 협회장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 초대 우승팀이 됐다.

수창초는 최근 청단야구장에서 진행된 제1회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화정초와의 첫 경기를 8-5 승리로 장식한 수창초는 송정동초를 17-8로 꺾은 뒤 결승에서는 서림초를 9-8로 이기고 대회 초대 우승팀이 됐다.

이번 대회는 올해 신설됐으며, 4~5학년만 참가할 수 있다.

수창초 노찬민이 최우수상 주인공이 됐고, 수창

초 조현익이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타격상은 11타수 9안타로 0.818의 타율을 기록한 임재영(수창초)에게 돌아갔다.

서림초 김태원이 6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최다 도루상, 서석초 안도경이 6타점을 만들며 최다타점상을 가져갔다.

감독상과 미기상은 서림초의 정원과 강훈이 각각 차지했다.

팀의 우승을 지휘한 류창희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강수진 부장에게 지도상이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